

## 국동항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총 1,415억 원 투입, 소형선부두 및 방파제 등 어항시설 확충 본격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10월 31일(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항 조성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그간 어항시설이 부족하여 국동항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하여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게 되면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특히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부두가 배보다 한참 높아 사람이 타고 어획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최근 3년간(2020~2022) 국동항에서 침수 40건, 화재 28건, 침몰 7건의 사고 발생

이에, 해양수산부는 1,415억 원을 투입하여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동항 건설공사는 2024~2025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소형선부두와 직각으로 돌출하게 설치된 부두 / \*\* 항구 내에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시설

이를 통해 어항시설이 개선되면 어항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그를 통한 신선도 향상 등 여수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수산업의 근거지인 어항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송경석 (044-200-5653)

## □ 사업 개요

- (목적) 국동항 어항시설 확대를 통해 정온 수역을 확보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
  - 시설확충 및 항내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어항이자 남해권의 중심 수산업 전진기지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

### <국동항 현황>

- 일반현황 : 재적어선 1,264척, 어업인구 1,430명, 위판고 2,042억원('19년 기준)
- 시설현황 : 방파제 200m, 파제제 250m, 소형선부두 2,573m, 친수호안 175m 등

- (위치) 전남 여수시 경호동, 신월동, 국동, 봉산동, 남산동 일원 국동항
- (총사업비/기간) 1,415억원(국비100%) / 2024년 ~ 2030년(7년)
- (사업내용)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선양장 40m, 연결교량 1식 등
-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2,56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63억원, 취업유발효과 1,620명

## □ 추진 경위

- 1979. : 제1종 어항(現 국가어항) 지정
- 1992. : 기본시설 완공
- 2004. : 정비사업 완공
- 2013.01 : 다기능어항 시범사업 준공
- 2021.12 : 국동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 2022.12 : '22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23.02 : 국동항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23.10 : 국동항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참고2

## 국동항 현황 및 개발계획평면도

### □ 국동항 현황



### □ 개발계획평면도(지도 출처 : 네이버)

